영암군, 인구감소 대응 전입유공장려금 지원 확대

단체·기업·기관 3인 이상 조건
실적별 30만~300만원 차등 적용
개인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저출산·고령화 집중 대응 노력"

전라남도 영암군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입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 킨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 유공이 있는 군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도 확장에 따라 단체·기업·기관은 3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30~3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3명 이상 전입에 기여했을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한 단체 및 개인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암군은 전입유공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유입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인구유입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0)에서 안내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앞으로도 전입유공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유인 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여성 취·창업 교실' 확대 운영
완도군,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전라남도 완도군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통해 교육생 27명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취업하고 1명이 창업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교육과정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요양 보호사 양성 과정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교육 등 총 3개이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은 2일 시작되며 15명의 수강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7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과정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 개설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양성 교육은 목포 YWCA와 협력해 관내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포나 여수 등 타 지역 교육기관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는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교육 참여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50-5292)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난달 28일 무안군청 직원들이 해제면 도리포항 일원에서 감성돔 치어 22만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

전라남도 무안군이 지난달 28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마리를 방류했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안에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을 집중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250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마리, 대하 종자 250만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낙지 7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교육
목포경찰, 대응요령 지도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호남권통일 플러스센터 2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정폭력·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사례와 최신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지원 요청 등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 등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치안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불 화재예방' 캠페인

전라남도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압해읍 일원에서 신안군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불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에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회의'가 열렸다.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어진 거리 캠페인에서는 신안군청, 신안소방서, 압해파출소,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화재예방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경각심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아카데미 회의와 캠페인 진행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자율적인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신안군이 압해읍 일원에서 지역 청소년과 함께 '산불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신안군 제공

신안=홍일갑 기자

고향사랑기부 신규 답례품 모집
강진군, 9일부터 접수

전라남도 강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을 위해 신규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강진군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다채롭고 정성이 담긴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답례품목과 업체를 동시에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강진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의 신청 자격, 신청서를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일부터 12일까지이며 강진군청 2층 총무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강진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답례품목은 28개로 △농·수·축·임산물 8개(쌀, 잡곡류, 파프리카, 건수산물, 한우 등) △가공식품 12개(묵은지, 토하젓, 발효차 등) △공예품 1개(청자) △관광 및 서비스 상품 7개(강진사랑상품권, 꽃배달상품권, 푸소체험권 등)이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려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061-430-3708, 346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청년 정책 발굴단' 참여자 모집
무안군청년플랫폼, 18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청년플랫폼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무안 청년 정책 발굴단'을 구성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의 시선에서 지역 문제를 구조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정책 실험 모델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무안군에 거주·재직·재학 중인 19세부터 45세이하 청년이며 총 1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분야별 공동 활동'과 '개인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분야별 활동은 같은 분야를 선택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협업형 활동이다.

개인 활동은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각각 1회 이상 활동 및 결과물 제출이 원칙이다.

정책 기획이 처음인 청년도 정책 발굴 워크숍을 통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발굴된 정책은 정책 제안서로 정리해 정책제안대회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활동은 6월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정책 워크숍, 중간 간담회, 정책제안대회, 최종 공유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정에 걸쳐 활동 기준 충족 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무안=김행언 기자